



마른 김과 간장 한 종지



김 태 호
기획팀 차장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쯤 일이다.

동네 단관 극장에서 심형래 주연의 ‘우리매’를 상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텀블링을 하면 바보 형래가 똑똑하고 멋진 에스퍼맨으로 변신하는, 그래서 동네 꼬마들을 시도 때도 없이 옆 돌기를 하게 만들었던 그 ‘우리매!’ 꼭 보고픈 마음에 ‘단식투쟁’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는 냈는데, 허락에는 꼬리, 아니 조건이 따라붙었다. ‘여동생과 함께 갈 것!’ 다음날 극장으로 향하는 내 손엔 동생의 고사리 손이 철썩 붙어 있었다.

역시 에스퍼맨. 우리매의 인기는 대단했다. 단관 극장 앞은 꼬꼬마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친구 녀석들도 군데군데 까만 머리를 한껏 치켜들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이러다 영화를 보기는커녕 표도 못 사겠다’ 싶은 찰나, 하늘이 도우사 친구 어머니께서 우릴 보시고는 표를 사주셨다. 드디어 입장!

바보 형래가 텀블링 한 번에 에스퍼맨으로 변신하고, 우리매가 멋지게 악당을 물리치고, 보는 내내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마음 같아서는 극장 맨 앞으로 뛰쳐나가 옆돌기라도 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아, 꼬꼬마에게 ‘우리매’는 정말 대단한 영화였다.

에스퍼맨의 멋진 손인사와 함께 영화가 끝났다. 얼른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에스퍼맨 따라잡기 놀이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득 안은 채 극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하나 밖에 없는 극장 출구는 무척 붐볐다. 한참을 시달린 끝에야 드디어 극장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날은 찻지만 마음은 용광로 같이 훨훨 타고르고 있었다. 영화의 감동! 대로변에서 뽀짝 옆돌기를 해대며 친구들과 에스퍼맨 흉내를 내는 그 기분이란! 그런데 신이 나도 너무 낯다.

한 10분을 그렇게 흥분 상태로 뛰어다녔을까? 갑자기 허전한 느낌과 싸한 느낌이 동시에 엄습했다. 뭔가 빠뜨린 것 같은 기분,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뭐지, 이 기분은?’ 아뽀! 그랬다. 동생이 없었다. 극장에 들어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만 해도 옆에 있었던 동생이 사라진 것이다!

아직도 신나게 옆돌기를 하면서 깔깔대는 친구들을 두고 극장으로 뛴다 달렸다. ‘아, 동생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버지한테 진짜 혼날 텐데... 개는 손 꼭 잡고 있으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별별 생각을 다 해가며 달리고 또 달렸다. 극장 앞은 여전히 사람들로 혼잡했고, 동생은 옷자락 끝조차 보이지 않았다. 눈물이 났다. 걱정도 났다. 오만 생각이 다 났다. 추운 줄도 모르고 그저 주저앉고만 싶었다.

그렇게 한 10분이 지났을까? 사람들이 얼추 빠져나가고 나니, 앞이 좀 보이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초점 없는 눈으로 극장 앞을 둘러보는데 극장 매표소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왔다. 동생이었다! 오빠도 안 보이고 사람도 너무 많고 무서워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거의 30여 분을 그 추운데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던 것이다. 고맙기도 하면서 갑자기 괘씸하기도 해서 꿀밤을 한 대 쥐어박았다. 잘못은 내가 해놓고, 그래도 동생은 오빠를 만났다는 마음에 해해 웃기만 했다.

동생 손을 꼭 잡고 집으로 왔다. 그제야 안심이 됐는지 허기가 밀려왔다. 마침 엄마는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고, 곧 맛있는 밥상을 우리 남매에게 내어주셨다. 꾸역 꾸역 밥을 입에 밀어 넣으며 영화 본 이야기, 동생을 잃어버릴 뻔한 이야기들을 신나게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그런 날 보는 엄마의 그 표정이란.

그 때 그 밥상엔 갓 구운 마른 김과 간장 한 종지 그리고 고슬고슬한 밥 한공기가 있었다. 조출한 밥상이었지만, 뜨거운 밥 한 술을 고소한 마른 김에 싸서 간장에 살짝 담가 먹는 그 맛이란. 허기도 반찬이었을 테지만, 영영 헤어질 뻔한 동생을 찾았다는 그 안도감이 맛난 한 끼를 만들어준 것은 아니었을까.

오늘 점심, 오랜만에 마른 김과 간장 종지를 보니 불현듯 떠오른 꼬꼬마 시절 추억이었다.

